

도심에서 즐기는 레저스포츠 한강으로 떠나자

최근 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소수 마니아층만 즐기는 전유물'이란 이미지가 점차 '가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 시민은 운이 좋은 편이다. 서울 시민의 쫓겨난 한강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레저스포츠를 손쉽게 만나볼 수 있다.

글 박순모 기자
사진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뉴시스



수상 레포츠에 아낌없이 지원하는 서울시

서울시가 레포츠에 관심을 쏟은 지는 오래된 편이다. 서울시는 1987년부터 한강을 일반 대중에게 개방하며, 수상 레포츠 시대를 열었다. 당시에는 시민들이 모터보트와 수상스키 두 종류의 수상 레포츠를 제한된 지역에서 짧은 시간 동안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28년이 지난 지금은 수상 레포츠뿐만 아니라 산악자전거, 윈드서핑, 웨이크보드, 제트스키, 인라인스케이트, 익스트림 게임, 게이트볼, 바나나보트, 파워요트, 인공암벽 등반, 플라이피시, 에어체어 등 다양한 종류의 레포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수상 레포츠는 특유의 청량감과 스릴도 있지만, 전신운동 효과와 다이어트 효과 등이 있어 상당히 인기가 높다. 서울시에서 강습도 지원하는데, 대표적 수상 스포츠인 수상스키, 의자에 앉은 자세로 물 위를 달리는 에어체어, 스노보드를 물 위에서 즐기는 느낌인 웨이크보드 등 취향에 맞춰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난이도는 크게 높지 않지만, 강습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수상 레포츠는 기술을 배우면 배울수록 멋있는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강습비는 전체 종목 각각 7만 원 정도다. 초보 강습 과정을 이수했다면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1회에 2만 5,000원 선이다. 망원, 여의도, 잠원, 잠실지구에 강습 장소가 있다.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쉬운 레포츠

반복 숙달이 필요한 레포츠가 아닌 놀이용 레포츠를 즐길 수도 있다. 한강에는 수면에서 최대 3~4m 부상할 수 있는 플라이피시, 물 위에서 통통 튀는 땅콩 보트, 짜릿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바나나보트부터 일명 '개썰매'로 알려진 밴드웨건까지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나 어린아이들도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수상 스포츠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요트나 유람선처럼 관조하는 재미가 있는 레포츠도 한강에서 즐길 수 있다. 부자들의 전유물이란 이미지가 있는 요트도 한강에서 이용하기엔 가격 부담이 낮다. 요트는 1회 1시간에 2만 원~10만 원 정도로 이용할 수 있다. 장소는 잠원, 잠실, 여의도, 망원, 난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유람선은 요트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1회에 1만 1,000~1만 6,000원 수준이다. 이용 가능한 장소는 7곳(잠실, 여의도, 양화, 독섬, 난지, 서울숲, 잠두봉)으로 선착장에 일반 유람선 7척이 운항 중이며, 식사와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선착장 수상(水上) 식당이 운영되고 있다.

한강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아이템 '오리배'도 빼놓을 수 없다. '우정과괴', '사랑과괴' 등 오리배를 떠올리면 생각하기 쉬운 것이 페달을 밟아 전진하는 방식뿐인데, 자동 방식으로 움직이는 오리배도 있다. 유산소운동으로 몸의 균형감각을 키우고자 한다면 수동방식이 좋겠지만, 한강 위에서 유유자적하고 싶다면 자동방식을 추천한다. 이용요금은 수동은 40분 이내에 1만 5,000원이며 자동은 40분 이내에 2만 원이다. ㉞

수상 레저 스포츠 활동시 주의사항

- 1 강, 바다의 날씨를 주의깊게 살핀다.
- 2 수상레저사업장이 정부에 공식으로 등록된 기관인지 확인한다.
- 3 바나나보트 이용시 파도의 충격으로 수중에 추락할 염려가 있고, 또한 강이나 바다에 추락하면서 앞사람이나 뒷사람 부딪쳐 얼굴과 머리에 부상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 4 모터보트를 타는 경우 급회전이나 과속으로 보트에서 튕겨져 나갈 수 있고 파도와의 충격으로 제자리에서 이탈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안전손잡이를 꼭 잡는다.
- 5 수상 레포츠 활동 금지구역을 준수한다. 야간에는 수상 레포츠를 즐기지 않는다.
- 6 비상연락수단과 조난신호장비를 갖춘다.